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6.10.5.(월) 배포 즉시		사진	○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평화협력과 (평화교류팀)	과 장	우병배 (031-8030-2410)					
		팀 장	이희훈 (031-8030-2421)					
		담당자	김지아 (031-8030-2422)					

전시와 음악, 학술이 함께하는 평화·생태 축제

경기도, 10월~11월 파주·고양 일원서 DMZ OPEN 페스티벌 개최

- 2026 DMZ OPEN 페스티벌, 10월부터 11월까지 파주·고양 일원에서 개최
 - ‘선을 열어 삶을 잇다(Open the Line, Connect the Life)’ 주제로 DMZ 가치 확산
 - 전시, 국제음악제, 에코피스포럼 등 미술·음악·학술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가 10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과 고양시 일원에서 ‘2026 DMZ OPEN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 페스티벌은 ‘선을 열어 삶을 잇다(Open the Line, Connect the Life)’를 주제로, 분단과 경계의 상징인 DMZ의 선(Line)을 열어 사람과 사람, 일상과 세계를 연결하고 새로운 평화의 흐름을 만들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DMZ를 예술적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DMZ OPEN 전시 ▲음악으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DMZ OPEN 국제음악제 ▲국내외 전문가들과 평화공존 방안을 논의하는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이다.

먼저 DMZ OPEN 전시는 10월 12일 시작돼 11월 29일까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등을 중심으로 열린다. 올해 전시는 DMZ를 통제와 단절의 공간이 아닌 기억·생태·공존의 서사가 살아 숨 쉬는 복합적 관계의 ‘무대(STAGING)’로 재해석해 진행한다.

안규철, 선무, 애비게일 라파엘 콜린스, 윤수연, 데니스 베르치, 연진영, 최진욱, 오형근, 박찬경, 정가희 등 국내외 작가 14명이 참여해 DMZ의 역사와 생태, 기억과 공존을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DMZ OPEN 국제음악제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총 4회 열린다. 올해 국제음악제는 ‘PACE : 평화로 돌아가다’를 주제로 ‘Pulse(시작의 박동)’, ‘Awaken(깨어나는 평화)’, ‘Connect(연결되는 마음)’, ‘Eternity(계속될 평화)’로 이어지는 음악적 서사를 선보인다.

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말러리안 오케스트라, 밀레니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참여하며, 미하엘 잔데를링, 여자경, 진솔 등 지휘자와 피아니스트 손세혁,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등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폐막 공연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밀레니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하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제음악제 티켓은 10월 2일부터 고양아람누리 누리집과 NOLETicket(놀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10월 28일에는 소노캄 고양에서 ‘평화공존의 길을 열다’를 대주제로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이 열린다.

올해 포럼은 경기도와 통일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국내외 전문가와 도민 등 3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조세션에서는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발레리 줄레조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3개 공동주최 기관장과 함께 대담도 갖는다. 이어지는 오후에는 통일부와 재단이 각각 주관하는 2개의 평화세션이 차례로 열려 DMZ의 가치와 평화공존 등에 대해 논의한다. 경기도는 생태세션으로 ‘동북아 스마트 생태도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예술과 음악, 국제적 논의를 통해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그 가치가 세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MZ OPEN 페스티벌의 세부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 등은 DMZ OPEN 페스티벌 공식 인스타그램(@dmzopen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